

**김추일** 언 나서부터 항상 깨끗이  
행하고 착한 스승과 벗을  
구하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이 되면  
괴로움을 벗어나 기쁨을 이루리라  
(법구경·사문품 16절)

# 東大新聞

발행인: 김추일, 편집인: 김추일, 발행처: 동국대학교, 발행일자: 1995년 9월 18일, 구독료: 1000원, 광고료: 1000원, 연락처: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2770-2357)

제 1181 호 (주간) 1964. 1. 1 동국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 (불기2539년) 9월 18일 (월요일)

11

## 동국학원, 데이콤과 산학협동 종단사찰의 정보화에 큰 영향 미칠듯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본교 전자계산원과 데이콤과의 산학협력 협정 조인식이 이사장실에서 있었다.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위하여 정보화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사회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으로 데이콤은 정보통신교육을 전달할 산학협력교육 센터를 전자계산원에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교육자원을

제공한다.

내용은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최첨단 실험기자재 등 제반시설 지원 △정보통신교육에 필요한 정보통신교육실시 △본 협약을 기반으로 도교육원 및 사찰의 정보화 적극 추진 △데이콤 교육생에게 신규실습시설 일부개방이다.

본교와의 산학협력협정으로 종단사찰의 정보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내년입시 논술고사 방안개선 단독과제 80분 1천자 작성

96학년도 입시 논술고사가 현행 60분 6백자에서 80분 1천자로 조정되어 실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대학 학문 수학적능력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 측정 위해 치러지는 논술고사의 변경·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논술고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사시간과 분량은 80분 1천자로 (전년도에는 60분 6백자) 늘렸으며 △단순 주제형 1문항을 출제한다. △배점은 1백점 만점이며 △제출 기준은 문제해결의 창의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표현과 구성의 논리성, 맞춤법과 형식의 정확성의

4부분으로 각 25점씩 배정된다. △제출부분 출제는 작년과 변함이 없다.

### 학사일정 조직화

### 행사주간 등 설정

교무처 (처장=장오현, 경제학)는 96학년도부터 학사일정 조직화에 들어간다.

각학과 행사로 인한 결강·휴강 등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 중에 행사주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 각학과나 교내모임의 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1학기 개강은 매년 3월1일이며 8월 마지막주 월요일이 2학기 개강이 된다.

## 개교 90주년 기념행사준비 집행·실무위원 구성...워크숍

개교 90주년 기념행사준비를 위한 집행위원, 실무위원 워크숍이 지난 1월, 2월 이틀에 걸쳐 수안보 프라자콘도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개교 90주년 행사 집행위원장인 한보광(문학·개교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과 박정훈 예산계장을 비롯한 실무위원11명이 참석했으며 △개교 90주년 기념사업추진의 기본계획토론 △개교90주년 기념사업준비사항토론 △행사계획토론 △등문

주관 행사 기본 계획토론의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개교90주년 기념사업 집행위원 1차회의가 지난 5월 4시 교무위원회실에서 있었으며 기본계획 설명과 기념사업추진 준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제2차 개교 90주년 기념사업 집행위원, 실무위원 연설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 종관위 재단이사 추천 총회 동의 거쳐 이사회에서 5인 확정

### 총회 동의 거쳐 이사회에서 5인 확정

본교 재단이사회의 임기만료이사에 대한 이사추천이 지난 15일 총무위원회 4층에서 열린 총립학교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오는 11월22일 임기만료를 앞둔 이사는 오복원이사장을 비롯, 고광덕이사, 서벽파이사, 박연성이사등 4명이며 작년 조계종개회이사회의에서 해임된 서홍봉 전총무위원장 자리까지 총 5명의 이사가 새로 선출된다.

이번에 복수추천된 이사는 다음과 같다. △김법정=수석사·동국학원장사 △박현성=현성사·동국학원이사 △박지하=법통사 △오교산=쌍계산 △오복원=직지사·동국학원이사장 △유원만=용화사 △윤원호=백련사 △이성태=불국사 △이재관=해인사 △이정화=정명사 (이상 10명 가나다순)

조계종 총립학교 관리법 3장7조 4항에는 "총립학교 관리위원회는 이사와 감사등 임원후보를 선정하여 중앙총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기관에 복수추천, 후보선정시 교육기관과의 협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5일간 열리는 조계종 제 118회 총회에서 추천 이사10명에 대한 동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있을 재단법인이사회에서 이중 5인이 확정될 예정이다.

총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설조)의 간사인 현승남은 이번 추천이사 안건결과에 대해 "추천이사 안건은 종단 중간집으로 총립학교에 대한 관심과 발전의지 여부에

두었으며 특히 이번에는 교육결실을 위해 추천됐다"고 말하며 "이 주 이사선출을 종단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교 석림회(회장=법전)는 총립학교 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총립학교 발전방안 마련, 종파생의 동국대학 운영주체로 참여" 등의 내용을 지닌 제안을 지난 15일 전달했다.

서울캠퍼스 제27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에서도 "총립학

교관리법 준수, 동국의 구체적 발전대안과 기여를 가진 인사 추천, 동국발전에 종단과 재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 등의 입장을 표명, 오는 18일 재단이사회총회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종단내외의 학내구성원들의 애국적 관심이 쏠리게 될 이사장 선출과 이사개선에 대한 항방이 주목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동국이 거듭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취재부)

## 1만 동약 결의 대회

### 학사행정개편·이사 선출방향 결의

학사행정 쇄신과 재단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1만 동약 결의대회"가 서울캠퍼스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 주최로 오늘(15일) 12시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내년(96년)에 있을 대학총합평가와 올 10월에 있을 재단이사장 선거에 맞춰 실시되는 오늘 집회는 △현재 진행되는 개편, 학과통합 등 학사행정 개편 △김영삼 정권의 반교육적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재단이사장 선거투쟁 중간보고회 이후 투쟁방향 공유 및 별도의 스폰서문제 등 단위투쟁 선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천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4일부터 전체학생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로 △재단이사장 선거와 재단이사 추천은 총립학교관리위원회와 조계종 중앙 총회를 통한 개편된 법과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3년 문제제기 인사, 인맥과 파벌 관련 의혹 등이 추천되어서는 안된다 △동국발전의 대의명분은 충실한 인사, 동국발전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가진 인사가 추천되어야 한다 △종단과 재단 등은 이번 재단이사장 선거와 재단이사 추천, 임명 등과 함께 동국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동약' 전체 학생대표자 연서명을 실시, 오는 학생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조계종 단방투쟁을 가질 예정이다.

## 정기 노사협의회의

### 수위·경비직 근무 1일 3교대로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등은 2차로

'95년 정기 노사협의회'가 수위·경비직 근무체계 개선,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지난 14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섭위원으로 학교측은 김성빈(토목공학) 부총장의 5명, 서울노조측은 김윤길(배우자연사법본부)위원장의 4명, 경주노조측은 김홍규(총무과)위원장의 2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단체협약에 의한 인건, 학교측 제시 안건, 기타 안건 등이 논의됐다.

수위·경비직 근무체계 개선은 현행 1일1교대에서 1일3교대로 합의됐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2차 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체육대회 진행 확인 안건은 일정과 지원은 학교측이 그의 진행은 노조측이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한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하나의 학교측 제시 안건인 인사위원회 인원 조정 및 노조위원 자격 명시건에서 노조측은 인사위원회 인원조정은 찬성하지만 노조위원의 자격을 참사(과장)급 이상으로 한다는 학교측의 제안은 실질적으로 노조에 참사급이상의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인 외국어 교육비 지원은 오는 10, 11월에 있을 노조측의 강과 자원에 관한 건으로 2차 협의에서 학교측의 의견 제시가 있을 예정이다.

또 직제 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 역시 2차 협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2차 노사협의회는 오는 22일경에 있을 예정이다.

## 보리수

### 명징(明澄)

가을 바람이 삼삼하게 부는 날이다. 하늘은 더욱 맑다. 구름이 하늘가 높이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그늘이 고요하게 내린다. 저녁 무렵이어서 그런가, 마음속으로 미풍이 일고 있다. 추억이라는 것일까. 희상이란 상념일까. 가을은 단상을 갖게 하는 요지경이다.

문득 이런 경구가 떠오른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정말 울은 말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당하고 적절한 말씀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을까. 진리로운 말씀은 UFO가 아닌 것이다. 미확인 비행물체란 허공하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확인하고 목격하여야 속이 풀리듯이 꼭 제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 하늘로 날라간듯한 UFO. 이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가을이면 모두가 그리워하는 입을 갖고 싶어한다. 사람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다. 못 만나 괴롭든 만나서 괴롭든 이것은 다름의 문제이다. 지금 당장은 만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전제조건에 성향을 바르게 파악하고 사는 것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

치의 요망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숭이도 아침에 내게 저녁에는 세계를 먹는다든 원초적인 욕망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이 선행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로서 행위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아는 사실에 대하여 만민의 행동이 작용하는 것이 병통이다.

가을이 오는 계절이면 감성적 그리움이 온갖 환상을 그려내게 된다. 이러한 그리움 잘 없애는 수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자비를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라. 자비는 미움이나 시새움이 없는 것이므로 자비를 가지는 시간에는 공경과 섬김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사랑은 괴로움과 안락개음이 장막을 내리지만 자비는 환한 하늘과 같은 것이다. 가을 하늘 맑은 햇빛이 쏘이는 언덕에 올라 자비의 씨앗을 무엇인가 먹고 자라는가 명상에 있어보자. 자비는 미움을 넘어선 명정에서 오는 노래라고 불러봄이 어떨까.

### 목적배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 경영대학원

#### 2학기 경영환경특강

경영대학원(원장=이순동·경영학)은 '95학년도 제2학기 경영환경특강을 오는 26일과 10월 17일 등 국공(1.30)에서 실시한다.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26일(오후 7시)=불교정신과 기업경영, 법장스님(수석사주지) △10월 17일(오후 7시)=경영인과 경영철학, 정상영(금융·고려대학 회장)

### 교육대학원 40명

#### 학교발전기금 기탁

교육대학원생 40명은 지난 8월 31일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해 왔다. 5백만원의 기증한 강인희씨를 비롯한 39명이 기증한 액수는 총 1천 9백23만원가량으로 33명이 장학금의 전액을, 이외의 7명은 장학금전액과 개인기금을 합하여 전달한 것이다.



◇법종각기공식이 지난 12일 오후2시30분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오복원이사장, 송석구총장, 김갑주 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학생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통국인의 성금을 모아 이뤄질 범종각립 불사를 통해 경주캠퍼스 정각원은 명실공히 건학이념구현의 도량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취재부)

## 학보봉투전시회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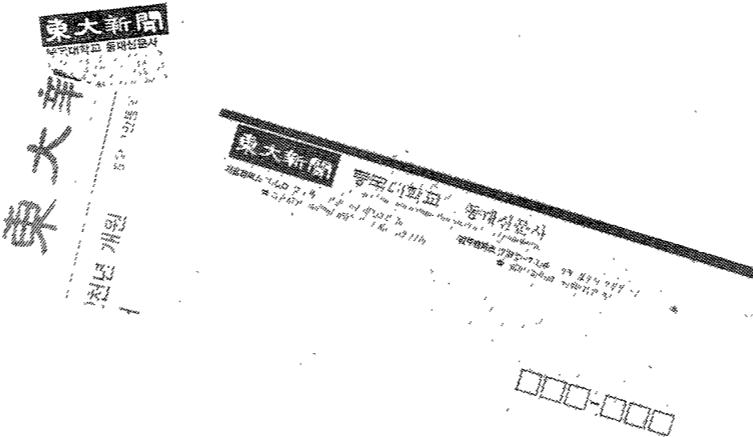
# “어떤 옷을 입혀 보낼까요?”

동대신문이 나오는 날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동국인과 함께하는 동대신문이지만 동문선배에게 소식을 알리는 물론 타학교의 동창친구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더 예쁘고 우리학교만의 특징있는 학보봉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봉투가 무료로 배부될 경우 현우편물 요금 130원 우표를 붙여야 하며 후불제일 경우는 그보다 싼 가격으로 학복위와 동대신문사에서 봉투를 판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학보봉투 전시회가 학생복지위원회와 공동주최로 20일부터 3일간 도서관 앞에서 개최됩니다.

\*경주캠퍼스는 동대신문사, 학복위, 우체국에서 학보봉투를 배부합니다.



## 동대신문사

## 제37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원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사가 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② 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③ 모집분야: 취재·만화·사진기자
- ④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지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 ⑤ 원서접수: 9월28일(목) 오후5시까지
- ⑥ 시험일자: 1차 9월28일(목) 오후6시, 2차 9월29일(금) 오후6시
- ⑦ 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만화·사진지원자는 실기),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 ⑧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⑨ 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흥관 A301(경주캠퍼스)

\*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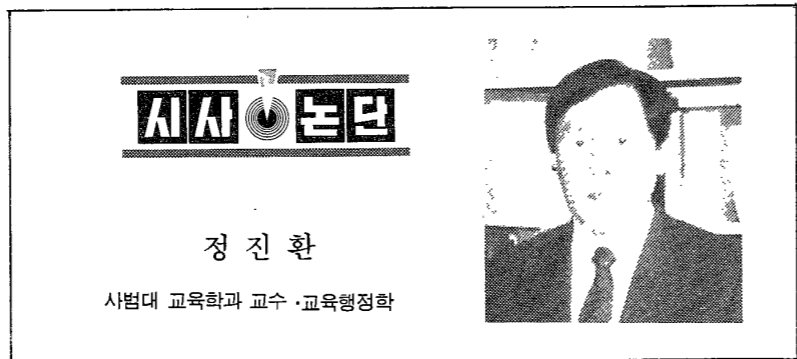
# 교육위원 선출 난맥상과 교육자치제 개선

##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보장해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최근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때를 이라는 것이 일반한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경이다. 실제 교육위원선출을 둘러싼 비리가 검찰 수사로 번지면서 갈수록 파장이 커져서 마침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교육위원 선출과정상의 비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교육 수혜자요 소비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육위원 후보가 되고 당선되는지 모르겠다며 기본권을 박탈당한데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공감대속에서 교육위원중상당수가 확연, 서점, 교육기자제사업등 교육관련산업의 종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들은 이들이 직업상 혜택을 노리는 자들이라는 강한 회의를 품기도 하였다.

교육위원 선출과정상의 비리가 얼마나 깊이 깊은 지는 검찰 수사결과 밝혀 질 것이다. 문제는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 자체가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과 역량 그리고 교육예를 지닌 훌륭한 인물이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위원 선거비리는 일차적으로 관련인사들의 자질과 관련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의 이종간선제 방식의 선출제도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정당 공천을 둘러싼 비리의 경우, 일부 여·야 지구당 위원장들은 기초 및 광역의원 후보를 중앙당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다. 또 그렇거사 당선된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들은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의 대가로 금품을 정



정진환  
사람대 교육학과 교수·교육행정학

는 식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속에서 뇌물 및 금품수수의 비리가 생긴다. 어찌되었든 교육위원 선출과정상의 비리설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비리와 쟁점에 관한 관심이 인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여 훌륭한 인물이 후보로 나서고 당선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관련인사들의 자질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의 이종간선제의 선출방식을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단위의 교육자치제와 더불어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단위의 교육위원과 광역단위의 교육위원 공히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에 대한 주민통제의 정신을 구현시켜야 한다.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할 경우 교육부가 걱정하던 추가재원의 수요요건가 빈번한 선거로 인한 예산소요는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에게 보수형식으로 월급을 지

급하는 것을 삭감하면 될 것이다. 명예직이 월급을 받는 현행 자치제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독립되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교육위원회가 의회상 지방의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사건건 시·도의회의 간섭을 받고 있어 허울좋은 심의·의결기관으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또한 선출과정과 맞물린 약자였던 교육위원들이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갈등의 불씨라고도 하겠다.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다룰 권한과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셋째, 첫번째 언급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교육위원 정수는 지역의 인구보다 교육청 또는 자치구의 수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2백80만

경상북도는 교육청 수에 따라 25명이나 인구 2백50만의 대구광역시 8명밖에 안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넷째, 교육자치제를 실제로 이르고 나갈 주체는 제도나 규정이나 지방교육청을 담당할 인사로서 곧 교육위원이며, 교육감이며, 행정요원들이다. 아무리 훌륭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여도 이들의 전문성이 결여되면 그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전문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시보다 제법에만 신경을 쓴다는 인물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요컨대,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해 볼때 여러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개선된 제도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아직도 제급할 수준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후행일지 모르겠으나 현행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보다는 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제도라고 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교육에 관한 최종 의결권이 교육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에 있고, 주민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지 못하고,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청의 고위직을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현행의 제도는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자치제를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들로서 이제 그 실시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착수하고 그 정착작업으로 우선 현 제제를 분석평가한 '교육자치백서'를 국민앞에 내놓아야 한다.

### ◇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 발간

#### 종립학교 운영좌표설정 필요성 지적

#### 재단·종단, 동국발전의 논의 진행해야

있었던 종립학교 관리위원회가 열린 날 발간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종립학교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으로 보여져 주목되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불교종립학교는 9개의 학교법인 산하 23개 학교로 동교육기관인 열세한 불교 종립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대 흐름의 변화속에 종립학교의 지도방향을 운영좌표설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불교 제주체들 사이에는 "종립학교는 주인없는 곳"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종립학교의 과제와 전망'부분에 따르면 종립학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네가지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종단과 종립학교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종단 내에 종립학교 전담부서를 두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도관리 역할과 동시에 재단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넷째, 불교적 비전 제시와 사상 지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동국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8백65만5천1백39.4㎡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4천8백34만8천7백37.7㎡이며 이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인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종단과 재단과의 관계가 타학 교처럼 정관에 시급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1세기 발전계획안에 재단과 종단의 역할, 구체적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불교종합병원 건립은 불교인의 숙원사업이자 불교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 이고 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종단차원

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전개해야 함은 어제보던 당연하다.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설조성님은 발간사를 통해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종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과 관리방안을 추진할것"을 제기하며 이러한 종립학교의 시대적 과제를 위한 제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작음을 밝히고 있다.

자료집발간위원장 박정규군은 "자료집발간이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모색을 위한 출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타종단과 개신교계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달리 정작 동국학원의 자료 협조에 미온적이었다"고 발간의 어려움을 덧붙였다. 앞으로 재단이사장 선출과 이사 개편을 앞두고 재단과 종단의 관계모색, 동국발전에 대한 논의가 전 구성원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소영기자)

### 사설

#### 이사진 개편, 동국발전계기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가을을 실감케 하고있다. 가을을 맞이하는 캠퍼스분위기가 조금은 어수선하고 들뜬듯하다. 비단 막바지에 다다른 학내공사뿐 아니라 이사개편을 앞둔 동국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올해 11월 임기만료를 앞둔 재단 이사장선출과 이사개편을 계기로 동국발전에 학내 제주체는 물론 재단과 종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조계종 종립학교법에 따르면 지난15일 열린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서 임기만료와 공석인 이사에 대한 10명의 이사가 복수추천되었고, 오는 19일 종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임원후보 선정시 법인과 협의의 거처도록 되어있다. 이후 재단이사사는 종회의 동의후 법인이사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본교는 불교종립대학으로서 개교90주년을 앞둔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종립학교법에도 제도적차원에서 종단의 만능스런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었으며 재단구성 또한 학교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작년의 조계종 법안에도 개혁의 영향이 동국대에는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말은 그동안 얼마나 본교가 개혁적 이미지와는 동떨어졌는지를 증명해준다.

동국발전이 각주체들과 더불어 재단과 종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재단투자가 학교발전에서 전제조건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 세입종중 재단투자비율은 93년 2%로 등록금은 학교운영의 78%를 차지했다. 재원확보방안으로 우선 재단자신이 공개되어야 하며 재단 재산을 수익사업으로 확대전환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다른 한편으로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교당국 인사전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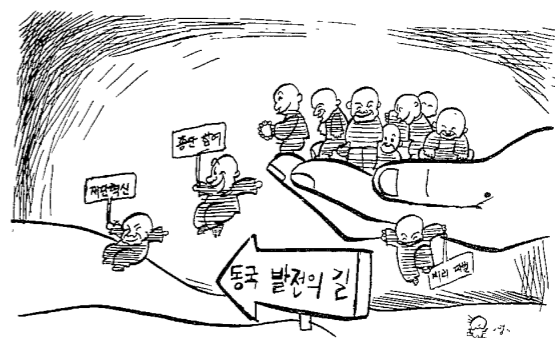
종단은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라는 명제를 다시한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동국학원의 이사추천권리 뿐 아니라 물적, 인적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전에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정립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할 것이다. 종단이 중앙승가대에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동안 정작 본교에 지원방안이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종단과 연계방법으로 종단내 종립학교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관 학생회측은 "종립학교관리법의 준수와 더불어 구체적 발전대안과 기여의지를 가진 인사가 재단이사사로 추천됨으로써 동국개혁의 계기를 만들것"을 표방하고 석림회 또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종립학교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의 교수회나 직원노조측도 어떠한 입장발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사선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이사장선출과 이사개편이 동국발전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동국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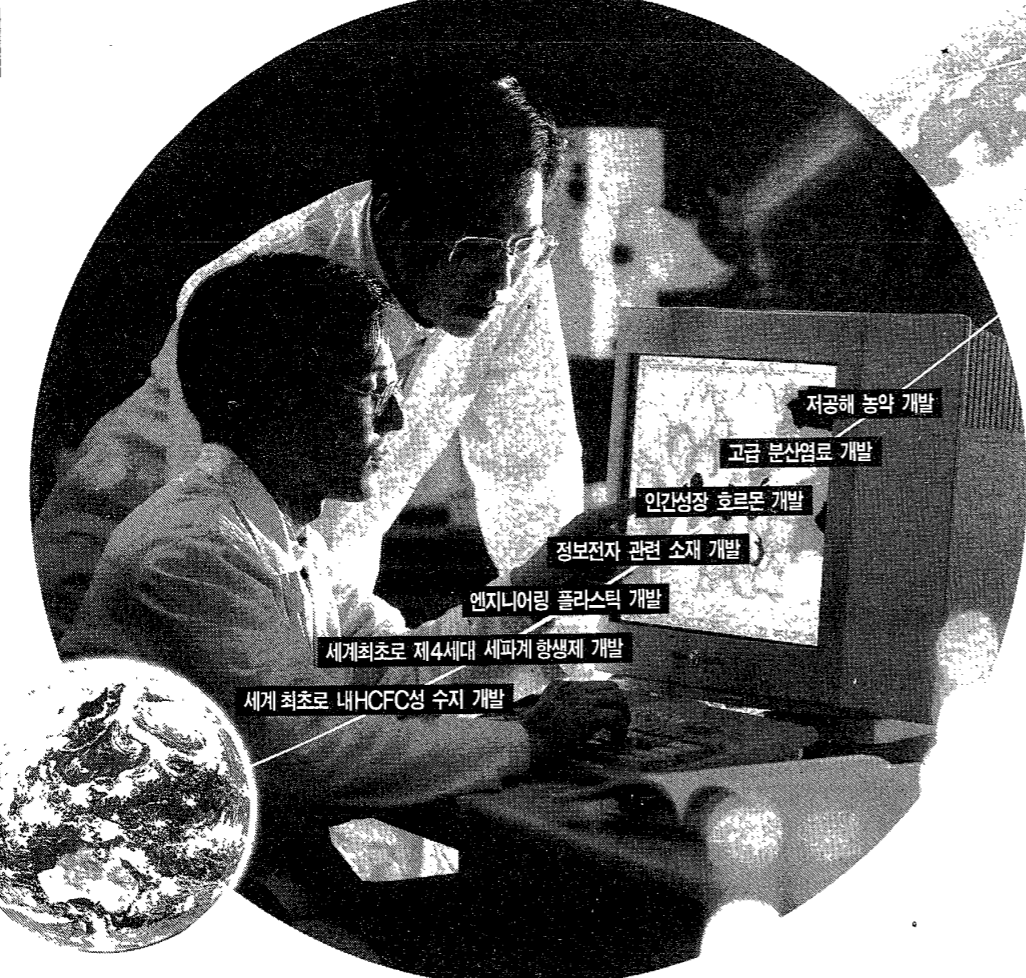
이영일



(김소영기자)

### 正道경영·초우량 LG

서울 080-023  
부산 080-052  
대구 080-071  
광주 080-061  
대전 080-041



- 저공해 농약 개발
- 고급 분산염료 개발
- 인간성장 호르몬 개발
- 정보전자 관련 소재 개발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 세계최초로 제4세대 세미계형생체 개발
- 세계최초로 내HCFC성 수지 개발

# 화학강국

첨단기술력으로 化學強國을 실현하는 일- 지금, LG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CU는 유전공학, 정보전자소재, 고분자화학, 정밀화학분야의 첨단 연구개발과 석유화학, 산업전자제, 생활건강, 정밀화학,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의 국내의 합작사 및 해외현지법인 등 사업의 현지화를 통하여 세계 초일류 화학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학CU · LG화학 · LG석유화학 · LG MMA · LG알라이드시그널 · LG오웬스코닝 · LG실트론



기획시리즈 - 다시한번 동국발전을 생각한다

# 질곡의 역사 딛고 동국중흥의 길로

## 재단 인맥·파벌 청산하고 선명한 개혁 필요 종단 새로운 관계설정으로 발전 견인차돼야

개교백주년과 21세기를 눈앞에 둔 본교가 과연 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발전의 길로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금번 임기만료 이사 4인의 교체와 결원이사 1인의 충원을 앞두고 다시한번 동국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특히 이번 임기만료 이사에는 현 소속원 이사장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동국이 안고있는 현안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사에서 동국의 현실에 대한 방정환 고철과 분석을 통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그리고 지금 거세게 밀려오는 시대의 조류속에 다시한번 선각자의 자리에 답답하게 나서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 해야 하는 운명적 시기에 다다랐다.

### 역사속의 민족동국

1906년 5월8일 명진학교로 문을 연 동국은 이후 불교사범학교, 불교고등강숙, 중앙학림, 불교전문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 해학전문학교 등으로 그 궤모를 바꿔가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인재를 양성해왔다. 이 과정에서 동국은 불교고등 강숙 시절 조선불교회의라는 조적조적에 대한 학교정비에 따라 폐교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외세탄압에 항거하며 민족자주와 불교자주를 위해 민족과 생사교과를 같이했던 동국은 1946년 9월 20일 드디어 현재의 이름인 동국대학교로 승격되기에 이른다. 또 1953년 2월6일에는 국내최초로 사립종합대학으로 승격·개편되어 민족사학의 정통성을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합대학 승격 이후 오늘날까지 동국이 걸어온 길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둘이될수없는 불교와 동국

동국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현대사와 교리를 함께 해왔다.

1955년 이승만정권은 정회유시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불교계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대립양상으로 소용돌이 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불교계와 동국의 운명을 어둡게 밀어넣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동국은 중심을 잃고 발전의 길에서 한걸음씩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1963년 종편이 비구승 중심의 조계종단으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가 현동국의 모습은 침체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오늘날 재단이사회의 구성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기여보다는 세력판도에 따라 임명되는 양상이 바로 이때 자리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승과 대처승과의 대립의 와중에서 학교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이권에 눈먼 일부인사들로 인해 이후 동국은 결정적인 발전의 순간에 발목을 잡혀왔다.

학교의 발전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었던 사건은 71년 해학관 건물 사건으로 인한 관선이사 파견이라 할 수 있다. 4년간 지속된 이 해학관 사건은 조계종 종단이 공무원 교육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종단과 학교와의 마찰로 정부는 74년 재단이사 전원을 동국과는 무관한 관선이사로 채우게 된다.

56년 정회유시이후 또다시 동국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수 밖에 없었다. 학교발전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이들로 인해 동국에는 무슨 비리 재단이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이권과 권력의 사주를 받아 학교운영전반에 걸쳐 부리잡은 무능, 어용, 비리의 양상과 인맥, 파벌의 형성이라는 현대동국의 만능적인 침체병의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이후 10·27법란 등 정권에 의한 불교탄압과 종단내부의 갈등이 있을때면 언제나 동국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간 것이다. 이처럼 동국의 역사는 한국불교 현대사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련과 고난의 역사였다. 불교계의 현대사가 신라불교의 화려함에 안주하며 변화와 개혁, 그리고 자주화에 등한시하고 있었던 동국역시 정통 민족사학의 옛모습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불교계는 빠른 꺾는 아픔을 겪고 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해 종단개혁을 통한 불교계의 자주화 노력과 개혁의 바람은 침체의 불교역사를 희망의 미래로 바꾸어 가고 있다.

### 현실속의 동국학원

불교계의 변화에 동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해 종단개혁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이러한 의문은 동국의 현실을 인식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과거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성과 이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거나 마지못해 따라가기 일췌이다. 학교가 정체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동국대학교의 물적 토대가 되어야 하는 재단에 있다. 재단 이사회의 구성이 종단내의 파벌과 문종의 안배 차원에서 구성되어왔고 이 속에서 서로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해집단을 해오며 자신들의 입지를 지켜온 이사장들은 정관상의 재단임원 호선 원칙에 따라 재선, 삼선은 기본이고 심지어 수십년간 자리를 지키면서 학교인의 온갖 인맥과 파벌을 형성해왔다. 따라서 이 인맥과 파벌을 중심으로 학교인의 모든 이권에 개입하며 학교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만 힘을 기울였다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다.

지난 88년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학생회는 재단혁신을 이야기 하며 재단의 인맥파벌 청산을 주요 투쟁과제로 제출하고 있다. 이렇듯 매년 계속되어온 문제제기속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는 이유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재단이사회에 있다.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인사, 재정, 행정 등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사회가 한국불교의 수년과 함께 무기력과 타율적운영으로 일관되어온 역사속에서 책임성을 확고히 구현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내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한다. 매년 똑같이 제기되는 동국대 인상의 문제 그 그렇고 교수채용시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는 것도, 무능력한 학사행정, 낙후된 교육과정, 기본적인 학습을 진행시키지조차 힘든 시설·설비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재단에서 기인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학내 모든문제의 근원을 제하고 있는 재단은 학교발전의 근본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 질곡의 역사속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동국중흥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 새 동국 건설에 부응해야

대학도 이제는 변화·해야한다. 시대의 조류도 그렇거니와 우리 주위의 여러 대학들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둘러봐도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느낀다.



뜻깊은  
지도자론



김택곤

왜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는가. 시대정신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민중의 표표를 제시하는 지도자가 없는가. 젊고 밝은 피를 이 땅의 민주화 제단에 바쳤던 주역들이 업연히 이 땅에 존재함에도 그들은 스스로 민주화 운동의 뜻과 정신을 내팽개쳐 버렸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독재정권에 의해 "술안김" 인물들이 이용당하고 "양식있는" 사람들이 흑백논리에 해부 당했다. 양김(兩金)시대에는 또 다른 영웅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양김에게 힘을 몰아 주어야 했다.

적어도 당시엔 "양김"이 희망이었으나,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인물이 세가 많았다는 것은 불행이다. 4·19나 6·3세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들의 "나라 걱정"은 어디로 숨어 보지 않는가. 당시 소위 주역이란 사람들은 정치인, 또는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역사는 발전했다는 거만 당했다. 양김을 제외하면 그들은 "빛나는 과거"를 팔아 "개인의 영달"을 샀다. 그것이 본의가 아닐지라도 그러해서 매년 얘기한다. 재단의 변화는 근본적인 학교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보다 선명한 학교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중심이 되는 재단으로 변화하기에 이번 이사진 개편은 대단히 위대한 기회이다. 물적·인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인 재도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속에는 현재 동국이 안고있는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진다면 이것은 늪에 빠진 동국을 응급처방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길로 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불교계에 물고있는 개혁의 바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종단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유익한 길일 것이다. 이속에서 종단역시 동국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중흥책을 모색해야 할것이며 우리 또한 이를 종단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부)

###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

누가 뭐라고 해도 동국대학교는 민족의 민족을 위한 민족에 의한 대학이다. 90여년전 불교계의 선각자들은 위기에 처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동국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비바람의 등불과 같았던 민족과 불교의 운명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었다는 사실부터 동국은 정통 민족사학으로서 그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후 수많은 시련속에 우리 동국은 정통성을 잃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동국이 지금의 모습에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는 좀 더 깊이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사진위는 설립 당시의 명진학교, 아래는 현재의 서울캠퍼스 전경.

## 기획시리즈

다시한번 동국발전을 생각한다

1. 동국의 어제와 오늘
- II. 산적한 문제해결의 첫걸음
- III. 대약진의 과업과 전망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 대단한 녀석이 나타났다!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신제품 10.4인치 TFT대형**

일명 속사포 교수님 시간. 중노동같은 노트필기에 잔뜩 긴장한 모습들. 그러나 난 의연하게 센스를 펼쳤. 녹음까지 하면서... 녀석들 이정도에 놀라기는! 재빠르게 자료 검색을 하고선 속사포 교수님에게 교수포로 질문! 나의 재빠른 질문에 당황하시면서도 교수님은 황홀한 듯 외치는거야. "정말 대단한 녀석이 나타났군!"

**초선명, 고화질의 TFT방식 10.4인치 대화면 16비트 사운드 카드, 스피커, 마이크 내장 - 혁신적인 2백만원대의 멀티미디어 노트북 PC 센스**

- TFT 대형 화면으로 리포트를 작성한다
- 녹음한 강의록 다시 듣는다
- 카페에서 통신까지 한다

■ 주요 사양 (소비자 가격은 부가세 포함)

구분	NT-34U	NT-34U+	NT-34D
GPU	486DX2-66	486DX2-66	486DX4-100
LCD	10.4" TFT화면		
Main Memory	4MB	340MB	6MB
HDD	2EA(TYPE II & III 동시지원)		
PCMCIA	VRAM, IMB, Local Bus		
Video B'd	16비트 FM/PCM 사운드(이펙터, 스피커 내장)		
Sound	2,298,000   2,486,000   2,750,000		

**World BEST SENS**  
삼성 노트북 PC-센스

세계 1등제품만을 만들었습니다

12개월 무이자 신용판매  
기간: 9월 30일까지

**SAMSUNG**  
삼성전자

C&C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100-022-3000  
100-541-3000

한국전자연구소 C & C 연구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7184-11, 세운빌딩 11F

달 하나 천 광 에

우리 영상산업의 현주소



김 영 배 (서울대 국문과 교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미래정보사회와 뉴미디어 산업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2천년대가 되면 우리의 삶과 문화는 커다란 변화를 만나게 된다. 다시말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대화형 벽걸이 TV와 디지털오디오 기술이 접목되어 홈극장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영화를 보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집에서 화상을 통해서 근무할 수 있고 집에서 상층을 주문할 수 있는 문화의 대변혁으로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한마디로 멀티미디어시대는 컴퓨터, 영화, 비디오, 음악, 정보통신, 출판 등 여러분야가 혼합되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나라가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할 수가 있고, 다양한 영상물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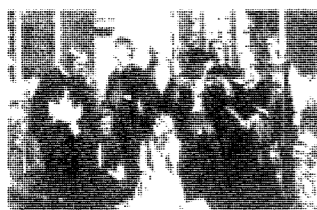
이러한 영상소프트 시장은 2천년대가 되면 세계적으로 약 3천2백조원 정도의 영상산업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10조원 정도의 영상제작을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현주소는 위기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이상 존립하기 어렵다는 극단적인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영화의 경우 1991년도에 1백20편이 제작되었으나 1994년도에는 65편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외국영화는 1991년도에 3백19편이 수입되었으나 1994년도에는 무려 3백82편이 수입되어 매년 약 30%정도 증감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영화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디오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입되는 외국의 시장 점유율이 85%나 되어서 외국의 오락영화와 폭력영화가 우리나라의 영상시장을 점령하여 문화종속화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대중처럼 밀려오는 외국의 영상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막막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영상산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자본의 영세성과 정부의 많은 규제 그리고 유통구조의 열악함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영상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영상물 제작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이 마음 놓고 자금을 이윤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규제일변도의 영화법과 압안 및 비디오법을 완화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좋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우리 다같이 2천년의 뉴 미디어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적이고 행정권의주의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밀려오는 외국의 영상문화에 어떻게하면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뜻을 하나로 모아야만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보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의 튼튼한 방어벽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과 희생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민 병 록 예술대 연영과 교수

문화단신



1885년 캠브리지 대학출신과 학생들로 정단된 1백40년 전통의 캠브리지 셰익스피어 극단이 9월 26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화여대

대강에서 '별빛'을 공연한다. 셰익스피어 극단은 영국내에서 이극단 출신의 수많은 훌륭한 연기자와 감독들을 배출했다. 특히 코미디언 피터홀링, 뮤지컬 '미스 사이공' 연출가 니콜라스 휘트러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여배우 톰슨, 영국 최고의 감독 클레브 노온 감독이 그들이다. '별빛'극은 대사는 영어지만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줄거리를 한글자막처리 한다. (문화부)

◇종생(衆生)의 언어-식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포플러나무 잎 자르면 상처없는 옆나무도 반응 보여

'마음이 있는 생물'이라는 '종생'의 참뜻 알게돼

김 영 배 (서울대 국문과 교수)

흔히 말(言語)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동물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구별된다고 한다. 하긴, 인간이 쓰는 말을 학술적으로 정의할 때 '자의적(恣意的)인 음성 기호의 체계'라 하고, 이 언어는 창조적인 것이고 또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라면 언어는 다른 동물들이 가질수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관점에 선다면 동물들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의 수단이 있음을 밝혀 낸 연구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독일학자 카를 폰 프리슈가 1973년에 발표한 꿀벌의 언어가 유명하다.

어떤 꿀벌이 날아다니다가 어디서든 먹이가 되는 꿀을 발견하면 벌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는데, 그 꿀이 있는 방향과 거리의 그 품질을, 소위 8자 모양의 춤을 추어서 알려며, 여기에는 지방에 따라서 그 춤이 변형됨

을 보아서 꿀벌에도 방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동물의 의사소통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동물도 그럴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좀더 범위를 넓혀서 '종생(衆生)의 언어'라고 했을 때

모든 살아있는 것은 종생(衆生)이라 한다

식물의 통신이란 어떤 것인가

말이 될 수 있을까? 곧 사람의 언어, 동물의 언어가 있다면, 종생은 모두 언어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종생이란 말의 뜻이다. '종생'은 원래 산스크리트어 Sattva의 번역으로 '정식(情識·마음)이 있는 생물'이란 뜻이고 당나라 현장스님 이후에는 '유정(有情)'으로 번역했으며 '미계(迷界)의 생

류(生類)'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불교사전에 나와 있다.

그런데 '정식(情識)이 있는 생물' 곧 '유정(有情)의 태두리에 인간과 동물은 포함되나, '무정(無情)인 식물'을 제외한다면 '종생의 언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것을 생류(生類)로 친다면 당연히 식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식물도 종생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종생'이란 말을 대하고서부터 그 뜻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품지 못하고 지나쳤었다.

이런 미심한 점을 환하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 생겼다.

지난 달에 받은 일본의 언어학 관련 잡지의 특집이 '식물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동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식물의 의사소통'이냐? 하고 머리를 가웃했었는데, 내용을 보니(물론 식물학계에서는 전부터 알려졌을 것이나), 1980년대 초반부터 이런 연구가 시작되어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곧 1983년 미국의 과학잡지 'Science' 221호에 발표된 블드원과 술

츠라는 두 학자의 연구가 그 시작이라 한다.

실험을 위해 분배다 심은 포플러 나무에서 그잎을 7% 잘라 냈는데, 52시간후, 그 잘린 잎에서 자체의 방어물질이라고 생각되는 페놀성 물질의 양과 합성 속도가 높아졌고, 이 나무의 이웃에 있는 포플러나무는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도 36시간

상처입은 나무의 방어물질을 받아들인 옆 나무는 상처없이도 페놀·탄닌이 방출됐다

후에는 역시 방어물질로 생각되는 페놀과 탄닌의 양이 증가했다. 이것은 상처 입은 포플러나무에서 나는 '냄새'는 이웃의 상처 받지 않은 포플러나무가 수용해서 그런 화학물질의 양을 증가시켰다고 보았다. 이때, 상처 입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여러 연구가 있었으며,

화학물질을 매개해서만이 아니라, 전기생리학 연구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연구는 이제 시작된 단계로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언어는 아니라고도, 넓은 뜻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말(言語)'이라 한다면 식물도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식물 사이에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겼던 필자의 좁은 의견을 확 트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종생은 '유정(有情)'과는 틀려 이른다는 고덕(古德)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종생의 말(言語)'도 말이 되게 된 것이다.

인간의 학문은 여태까지 수많은 미지의 문제를 밝혀 내고 또한 앞으로 밝혀 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인가?

8만4천 항사(恒河沙)의 진철(塵刹)에 있는 한발 미만한 존재로서의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새삼 '일체종생살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을 곰곰히 되뇌어 본다.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한의학에서의 오장(五臟)의 개념

오장-생명·정신의 유기적 연계 기준

간장-노여움 심장-기쁨등 정서변화에도 유관

장기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에 있어서 감정의 제어수단 또는 표현으로 사용된 일례이다.

흔히 접하는 또 한 실례를 들면 한방에서 요통의 원인이 신장기능이 약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신허(腎虛腰痛)이라 하는데, 신장(腎臟)의 기능이 허리로 표현된다는 한의학적 장부개념을 모르는 현대의학은 전공한 의사가 서양학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한 것으로 신장의 기능이 요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못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오장의 생리는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련의 조직, 기관 등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러한 '오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장의 기본개념 오장이라 함은 간·심·비·폐·신

(肝·心·脾·肺·腎)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해부학적인 실질장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명활동을 인식하는 다섯가지 계통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이 다섯가지 계통은 인체의 장부, 조직, 기관 및 정신활동과 정서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데 각각이 대표하는 계통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간장계통:간, 담낭, 눈, 근(筋), 손톱, 관절, 혼(魂), 노여움  
심장계통:심, 소장, 혀, 맥(脈), 얼굴색, 신(神), 기쁨  
비장계통:비, 위장, 입, 육(肉), 입술, 소화선, 의(意), 생각  
폐장계통:폐, 대장, 피부, 모(毛), 체표의 털, 땀(汗), 근심걱정  
신장계통:신, 방광, 귀, 뼈, 발(髮·머리털), 허리, 지(志), 두려움과 놀람

오장과 정신활동 오장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신활동과 정서변화를 오장의 기능변화와 상관시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당황하거나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혼이 나갔다'니 '혼비백산(魂飛魄散)'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혼(魂)이나 백(魄)은 한의학에서 오장과 관련된 정신활동의 일종이다. 또 몹시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간 떨어질 뻔했다'니 '간담이 서늘하다'고 장파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비위가 좋아'고 반대로 부끄러움을 뽐내는 사람에게는 '비위가 약하다'고 하는 등등의 표현은 오장과 정서변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의 두뇌활동에 해당하는 정신, 의식, 사유기능 및 정서변화를 한의학에서는 오

장의 기능과 관련시켜 말한다. 즉, 정신의식과 사유활동을 혼(魂), 백(魄), 의(意), 지(志), 신(神)의 다섯으로 구분하고 이 각각을 오장과 관련시켜 간은 혼, 심은 신, 비는 의, 폐는 백, 신은 정신활동을 지배한다고 인식한다. 정서변화는 기쁨, 노여움, 근심걱정, 생각, 두려움과 놀람으로 요약되는데 기쁨은 심, 노여움은 간, 근심걱정은 폐, 생각은 비, 두려움과 놀람은 신과 상호 관련되어 표출된다.

이처럼 한의학적 오장의 개념은 실질장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활동에 있어서 오장의 각기가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장부, 조직, 기관 및 정신심성변화의 일련의 계통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적 오장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요통에 신을 치료하는 신허요통이나 시력이 약한데 간을 치료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은 경우에 신을 치료하며 자주 놀라고 불안중에 시달리며 신경쇠약증이 있는 환자에게 심장이 허약하다는 등의 한의학적 의료가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한의학이 오장개념에 근거한 생명현상의 인식방법이요, 임상에 있어서는 진단과 치료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제7차 우리농민 고추판매

“고추 고추 열렸네 무슨 고추(?) 열렸나!!”



일시: 9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장소: 생명자원과학대 (해화관) 앞  
주최: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 (3647)

전국 대학생 불교 신행수기 공모전

1. 목적: 경주 캠퍼스 설립 17주년을 맞아 기존에 행하여 온 영남지역 대학생 참가가 경영 대학의 한계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지양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포교의 방법으로 전국 대학생 불교 신행수기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2. 분량: 200자 원고지 20장이상(A4용지 4장 이상)
  3. 원고마감: 불기 2589년 8월 21일~10월 14일까지
  4. 발표: 11월초 개별 통보 및 불교학생회 회지 녹아인 게재, 교계 권위 있는 신문 발표
  5. 대상: 전국 대학생 불자들
  6. 원고 내용: 일상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불교 신행의 삶 수련 대회를 통한 신심 함양 신행단체(철, 학생회 등)생활을 통한 신행활동
  7. 심사: 예심을 통한 입상작 선출 및 입상작 증상장, 장학금 수여
  8. 심사위원: 권위 있는 중진 교수 및 스님(당선작 발표시 함께 공고)
  9. 시상:
    - 대상-총장 상장 및 장학금(50만원)
    - 금상-총장 상장 및 장학금(30만원)
    - 은상-총장 상장 및 장학금(20만원)
    - 동상-총장 상장 및 장학금(10만원)
    - 특별상(영광상)-불교사주지스님 상장 및 장학금(20만원)
    - \*입상작-전원 상장 및 부상 \*기념품-참가자 전원 증정
  10. 원고 제출처: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불교 학생회 (우/780-714) 불교신행수기 공모 담당자 앞 ☎(0561)770-2589
  11. 기타:
    - 공모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시 성명 주소 전화 대학 학과 기재
    -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로 문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생회 한국대학불교연합회 경주특별지회

### 홍정식교수 유족 1억원 기증

#### 미산기념장학금 지급... 불대생 대상



고(故)홍정식박사의 장남 홍성용 씨를 비롯한 유족이 본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증했다.

홍정식박사는 본교 불교대학에 명예교수로 재직했으며 별세후 평소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자재가 기금을 전담해왔다.

기금 전달식은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에 홍정식실에서 있었으며 이에 송석구 총장은 "대학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불교라는 이름을 통해 이루어질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생자대, 고추판매 21일부터

#### 사과·마늘·참기름 등 농산물도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회장=박동혁·생명자원원정제4)와 제천 농민회는 제7차 우리농민 고추판매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해와앞에서 실시한다.

농민연대와 학생회간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추 판매와 더불어 사과, 마늘, 참기름 등 농산물 판매도 함께 하며 판매수익 전액은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학생회장 박동혁군은 "고추판매로 학생회연대및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는 장충동을 비롯해 필동, 약수, 금호, 청량리 등지에서 고추판매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가을 학술제 시작

#### 총여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기'

#### 법대 '5·18 불기소처분의 법적 고찰'등

법과대학생회(회장=나상원·법4)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제8회 동국법대 학술제인 '두리제'를 가진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남북한 민법의 비교고찰(북한 민법을 중심으로)'가 사법학회 주최로 오후 3시 동국관(L212)에서 있으며 22일엔 △'국가권력, 시민사회 그리고 헌법 재판'에 관한 심포지움이 민주법학회 주최로 오후 1시 동국관(M302)에서 열린다. 같은날 △'5.18불기소처분의 법적고찰'에 관한 강연회가 미대를 있는다리와 모니터링의 주최로 오후 4시 30분 동국관(M302)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날인 22일에는 '한미 행정절정에 관한 제 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움이 오후 12시30분 동국관(M404)에서 공법학회 주최로 진행되며 △'배우자의 폭력과 정당방위'

를 내용으로 하는 행사법학회 주최 행사모의재판이 같은날 오후 4시 중앙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다학관2층식당에서 있는 동국 법대의 밤을 끝으로 3일간의 행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동안에 5·18 책임자 처벌추구를 위한 연서보내 기운동도 함께 실시된다.

제10대 총여학생회(회장=김나영·교육4)도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제2회 학술문화제를 갖는다.

20일 오후 7시 도서관앞에서 야외영화 '그녀에 대해 알고싶은 두세 가지 것들'이 상영되고 21일 오후 5시 소강당에서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제작자이며 감독인 변영주씨의 초청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 상반기 통상 감사 마무리

### 주의·경고·물질적 보상등 총 13곳 무더기 징계

#### 총대, 감사에 대한 두려움·인식 미비 원인 지적

'95학년도 상반기 통상감사'가 총대의원회(의장=박대용·불교4 이하 총대)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달(8월) 1일 법과대 학생회를 시작, 지난 12일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를 끝으로 약 한달 반동안 본교 전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회 강화, 학생회 한 학기 사업의 공개적 평가 자리"라는 기초를 가지고 시작한 이번 감사는 감사 초기의 자료미제출로 인한 무더기 징계, 감사일정 연기 등 감사에 많은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총대는 감사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인식미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감사는 사업, 조직, 예산, 비품, 공약 감사가이 중적으로 진행됐고 감사결과 사법대, 법대, 졸업준

비위원회(이하 졸업준위)가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감사동안 △주요=이과대, 공대, 사법대 △경고=문과대, 법대, 생명자원과학대, 경상대, 사과대 등이 징계됐고 2학기 예산의 5%를 삭감하는 △물질적 보상=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불대, 예대, 동아리연합회등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총학, 사법대, 경상대, 이과대, 불대가 감사결과 이의서를 제출해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총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학생자치기구가 학우들의 의식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또 "학생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우대중들을 위한 사업부족, 조직구성 부실, 이로인한 단과대의 지도력

부족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이번 감사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이후 총대는 감사신문과, 감사자료를 발행해 학생들에게 기간 감사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 교편 감사 무산

#### 2학기 예산동결 검토

지난 학기 감사 실시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교편에 대한 감사진은 그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총대는 계속 감사를 거부할 때엔 2학기 예산동결, 더 나아가 96학년도 등록금 고지서에서 교지대를 삭제할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학교·동연 연구분과 문제 논의

### 양측 입장 강경...이전 문제 해결 어려울 듯

학생회장과 공사와 관련한 연구분과 동아리 이전의 문제가 연구분과장과 학생과는 지난 14일 이전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다. 연구분과측은 이날 회의에서 "연구분과 동아리의 학생회관 이전은 동아리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이전에 반대했으며 이후 연구분과 운영계획안을 학교측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생과는 "현재 본교에서는 공간의 의미가 폐쇄적이라 내내 것이 아닌 함께 공유하는 개방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전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실적으로 동국관의 연구분과 동아리는 동아리인지 학회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며 "연구분과 동아리 자신들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끝이 났다.

한편 동아리연합회 김용욱(화공4)회장은 연구분과 동아리 이전 및 학생회관 공사문제에 대해 "무원칙한 학사행정으로 동아리 동국관 공간문제를, 연구분과를 학생회관으로 이전시켜 해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일 열리는 전체동아리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거친후 학교측에 "요구안"을 제출해 정식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대회 내일 개최  
공간 문제 등 논의

동아리연합회(회장=김용욱·화공4)는 내일(19일) 오후 5시30분 소강당에서 전체동아리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집행부인준 △동연 2학기 사업계획 △동아리 정치투쟁제안이 있고 △공간투쟁 △동연제 기획안 검토 등이 논의의건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용욱 동연회장은 공간투쟁과 관련해 "공간부족 해결을 위해 학생자치공간을 축소한다는 것은 학교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연구분과 이전 반대 △학술문화센터에 동아리공간 확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문제 해결등을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가 지난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어 상공관대(취재부)에서 열린 '서총련 투쟁 선포식'에 참여했다.

### 순수취업률 66.1%

#### 작년 2월보다 13.1% 상승

취업과(과정=황우열)는 95년 7월까지의 취업률이 총84.2%인 것으로 발표했다.

취업대상인원 전체 1천9백83명중 총취업자수는 1천6백70명(84.2%), 대학원 진학, 유학, 군입대, 고시를 제외한 순수 취업자수는 1천3백64명(66.1%)로 집계됐다.

취업과 관계자는 "작년 2월 순수 취업률이 53.1%인 것에 비해 13.1%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5백72명 41.9%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고, 자연계열이 3백92명 28.7%로 두번째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 야총, 공문 전달

#### 신설계획 등 답변요구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황인구·영문3)는 지난 13일 96학년도 야간강좌 학과 신설과 학사행정에 관련한 공문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96학년도 야간강좌 학과신설계획여부 및 그에 따른 여타문제에 관한 계획, 야간강좌 유사·관련학과와 통합계획이나 내용등이다.

학과신설의 경우 지난 학기동안 공간이나 교수확충에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학과통합에 관련해서는 타단과들 사이에도 민감한 사안으로 학교측의 답변이 귀추가 주목된다.

황인구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은 "변화될 대학환경에 대한 사전준비와 그로 인해 일어날지 모를 학우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충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학교당국에 요구했다.

### 학과소식

#### 불교학과

영화소모임 내외만다라는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학원관 소극장과 불상사에서 영화상영을 가질 예정이다.

#### 사회과

제86차 정기추계담사를 경북안동일대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담사의 주제는 △삼리화의 뜻과 △고려시대의 목조건축 △안동의 민속 △전탑과 마애불의 전과 등이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과 정기공연작품 'The Winter's Tale'을 21일부터 23일까지 연극영화학과 스튜디오에서 공연한다.

#### 삼일지원학과

서울경인지역 입학회 협의회 '한미'를 오는 23일 오전 9시 만해광장에서 가진다.

서울경인지역 입학과의 단결과 학술교류를 위해 치루어질 이번 행사는 각대학 학과 소모임 활동사항 전시회, 노래대 문화공연, 체육대회 등으로 학술 문화 체육 행사가 치뤄진다.

### 학전무대

#### 소금가든(?)

○...새입주를 맞이하여 수리단장을 끝내고 문을 연 명진가든에 많은 학우들은 기대하는 바가 컸다.

막상 영입이 시작된 요즈음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는데 먹음직함 떡국그릇을 앞에 두고 오만상을 쥔것을 수 밖에 없는 음식 맛이 문제.

아니 조리사 손끝에 소금맛들이라도 달렸는지 한결같이 짠맛이 입맛 잃은 학우들.

바야흐로 천고마비 식욕의 계절인데 음식맛 좀 내보시디.

#### 행사현상

○...동약에 때어난 행사현상?

학내보수공사로 파헤쳐진 흙이 그대로 방치돼 차가 지나가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고, 더우기 주위에 주차해놓은 자동차에는 글씨가 써질정도로 모래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어 미관까지 해친다는데.

이에 길을 가던 한 학우 왈 "바람이 멈추어 디오."

#### 동일은 언제

○...전년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일부에서 주적논쟁이 일어나는 등의 오해소지 방지를 위해 금년도에는 주적으로 명시했다."는 국방부 한 관계자의 말.

"군사원이 우리가 2고 북한이 1이던 가만히 있어도 북한이 우리를 대화하자고 한다"는 전 유엔대사의 말.

"김대통령이 쫓아서 학생운동 할때 반공투쟁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잘 안난다"는 전 육사교장의 말.

이에 감동한 학전무대자, 통일이 그날까지 만수무강 비읍니다.

#### 한민족 맞아?

○...우리조국의 반쪽 북한이 지난 여름 홍수로 엄청난 재해를 입고, 황급히 유엔에 구호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찡그리는 학우들.

그러나 우리 정부당국은 무슨 논지를 보는지 등을 들이더니, 고작 적십자사를 통해 5억 불상당의 구호품을 보낸다고 생색 내는 양을 보고, 민족화합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들에게 통일대업을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 그저 난감할 뿐입니다.

### 공 고

'95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및 '95학년도 전기 조기졸업대상자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지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1. 지원서접수기간: '95.9.18(월)~9.22(금)
2. 접 수 처: 학과
3. 지 원 자 격
  - 가. '96년 8월 졸업대상자, '96년 2월 조기 졸업대상자
  - 나. 전공과정 이수시 취득한 학점이 매학기 18학점 이상이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학년 2학기는 제외한다.
4. 졸업: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때 학칙 제56조에 의한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한다.(학위수여일자 동일함)
5. 제출서류: 가. 복수전공 이수지원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 교 무 처 장

### 시국관련 특례 재입학생 재입학 신청 마감 안내

1993년 3월25일 『대학 학생 징령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4.2)』과 『대학 제적학생 재입학 조치 계획』에 의한 시국관련 특례 재입학 대상자의 재입학하기 마감 및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국관련 특례재입학생의 재입학 신청은 1996학년도 1학기로 마감한다. 단, 구속, 군복무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입학서류를 제출치 못한 시국관련 대상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다음 학기 개시 30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함.
2. 시국관련 복적생이 복적후 자퇴, 제적 등의 이유로 학적을 포기, 상실할 때에는 시국관련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양지하기 바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학생과(Tel:260-3048)로 문의

1995.9

#### 학 생 처 장

### '95학사사관후보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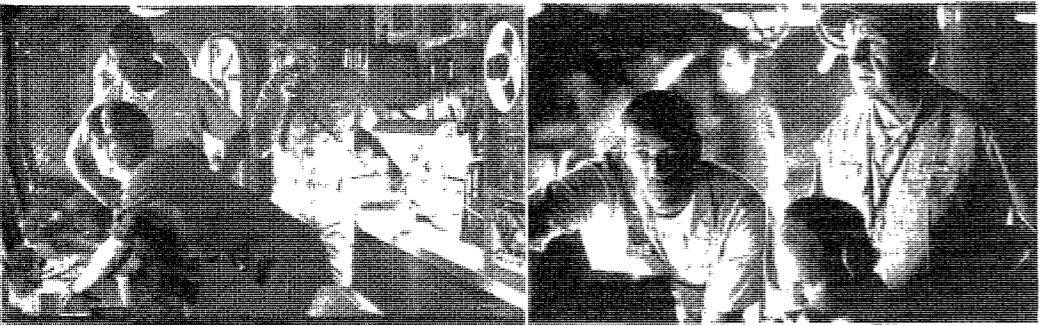
1. 모집인원: 00명
2.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69.10.1~'76.9.30)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5.9.11~10.21
  - 장소: 학군단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 까지)
    -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호적등본 2부
    - 자격증 사본(취득자에 한함) 1부.
    - 사진(4×5cm 탈모 상반신) 6매.
    - 타군출신자는 해당군 참모총장 추천서 1부.
4. 선발절차
  - 서류전형(입학생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 면접, 체력검정, 신원조회
5. 합격자 발표: '96.2.29
6. 특전
  - 단기간 교육후 육군 장교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에 국비로 취학가능(장기복무시)
  - 전역후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7. 문의처: 동국대 학군단 서울캠퍼스:260-3537-3538 경주캠퍼스:770-2537-2538

#### 제 112 학생군사 교육단장

### '95후반기 군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1학년 00명, 2학년 00명, 3학년 00명
2. 지원자격: 4년제 대학
  - 1학년 ('73.1.1~'79.1.1)
  - 2학년 ('72.1.1~'78.1.3)
  - 3학년 ('71.1.1~'77.1.3)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5.9.11~10.31
  - 장소: 학군단
  - 구비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1부(1학년 제외)
    -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지원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각 2부
    - 사진(4×5cm 탈모 상반신)3매.
4. 선발절차
  - 서류전형(입학생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 면접, 체력검정, 신원조회
5. 합격자 발표: '96.2.8
6. 특전
  - 학군사관 지원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후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7. 문의처: 동국대 학군단 서울캠퍼스:260-3537-3538 경주캠퍼스:770-2537-2538

#### 제 112 학생군사 교육단장



◀ 흑인 특유의 자부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백인에 동화된 모습만을 그리는 '크림슨 타이드'의 한 장면이다.

### 영학의 피리독스 - '크림슨 타이드'와 왜곡된 정치적 시각

## 타인종 비판·미국 정치적 입장 영화화 계속돼 백인화된 흑인 앞세워 백인중심 세계관 주장

#### 정재형

(예술대 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미국영화는 현실을 다루고 그걸 교묘하게 위장하고 자국의 시각으로 포장한다. 그러한 역사는 할리우드의 발달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 정치적 색채의 시각은 소수 백인 영웅로 색색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타인'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에 대한 묘사에서 그 의도가 분명해진다.

할리우드 영화의 본격 시작은 미국영화와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1915)으로부터 거슬러온다. 남북전쟁을 다룬 3시간 분량의 대서사시인데 남북을 통일한 미국의 시각을 역경하는 KKK단에서 찾았으며 흑인은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 미국내의 흑인들이 얼마나 심한 반발을 했을지는 당시의 자세한 기록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이 영화의 왜곡성을 놓고 당시 흑인들은 극장앞에서 격렬히 시위하고 '흑인들의 입장은 흑인 스

로의 영화를 통하여야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 흑인영화제작의 시위를 담기기 시작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레이건 시대에 나왔던 '람보'류의 남성액션 영화의 '인디애나 존스'류의 탐험영화는 베트남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인도 및 제3세계인들의 입장을 크게 왜곡시키는데 공헌해왔다.

최근 들어 미국오락영화의 목표는 마약공급처로서의 중남미(특히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와 테러수출국으로서의 중동 아랍국가이다. '인들러 리스트'가 독일인의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현재의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미국은 노골적으로 유대인편들기를 하고 있다. '트루라이즈'라는 액션오락영화는 아랍인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이 영화 개봉시 미국에선 아랍계 미국인들의 극장앞 시위가 벌어졌다. 얼마전에는 '아웃 브레이크'라는 영화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실은 배를 한국으로 선적하여 우리의 많은 반축을 시기도 했다.

미국은 왜 끊임없이 타인종을 비

판의 목표를 삼고 영화속에서 노골적으로 자국의 정치적 입장을 부여하는 것일까?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은 타인종을 고유의 목소리로 동등하게 남겨 하기를 원치않는 대신 그들을 소수 백인그림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 영화를 이분법적 대립으로만 볼 수 없는 요소가 등장한다. '크림슨 타이드'의 흑인 부활장의 모습이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 백인 함장이 악당의 역할을 맡고 있고 흑인 부활장이 눈리정연하고 탁월한 상황판단을 하므로 흑인이 백인보다 더 우월하게 아니냐는 순간적인 오해를 하게 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흑인은 이미 백인화, 동화된 흑인이다. 흑인 부활장의 세련미는 이미 백인을 연상시키는 엘리트주의와 흑백인종을 초월한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가 흑인 특유의 자부심을 표현한 구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가 흑인임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동화된 흑인의 이미지를 통해 할리우드는 새로운 백인식 세계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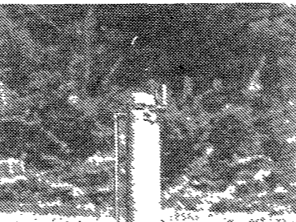
#### 메아리

### 꽃보다 열매

하다. 학구파들은 레포트를 못쓰겠다고 하고, 독서애호가들은 신간서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수처상으로 책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1인당 도서수준이 50.4권이나 되니 말이다. 구입하고 기증받은 도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도 2만여권이나 된다. 이 수준이면 대학종합평가에서 도서보유면에서 B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소장도서가 늘고 늘어 도서관이 포화상태 이런 계획이나 공간마련 계획이 전혀 없고

독같은 책과 교서(古書)가 가득한 도서관에 투자하는 비용은 등 록금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 ▲지난 5월9일 본교교무위원회의에서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연기가 논의됐다. "대학종합평가는 단순히 합격, 불합격만을 판정하여 점수에 따라 대학을 일별로 세우기 때문에 종합평가에 합격만 하려고 애를쓰면 전반적으로 대학이 균형있는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내실있는 학교발전을 이룩하지는 결의아래 내년으로 평가를 연기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연기결정 당시의 '결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정도면 됐어. 합격수준이야. 이왕 같은 돈 드는거 점수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써야지'하는 맘으로 결모습만 치장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주)

#### The Abuse of the age·김두겸



나옆에 난장이가 앉았다·이정호

#### ◇미술학과 4인전 'Speak, speaking'

## '자기를 찾는 언어' 그려서 보여주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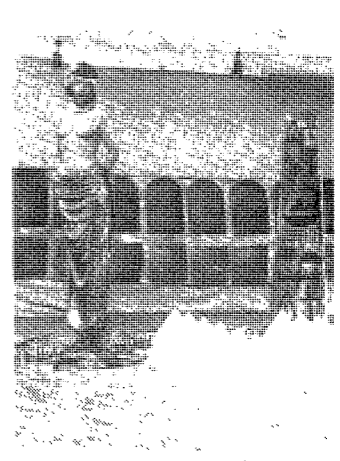
고개를 위로 꺾고 있는 부처님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유리 뒷면에 그려진 '가라사대 불(佛)'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한 설명없이 작품구성노트만 있어 더욱 궁금하게 만든 그림들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학생회관 상설전시장에 자리잡은 전시회 'Speak, Speaking'에 내놓은 작품들이었다.

이 전시회는 미술학과 4학년인 김두겸, 이정호, 박진명, 김희선 4명이 "자기를 찾는 언어"라는 커다란 화두를 가지고 지난 학기부터 준비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 세명이 계속 뜻을 같이해 이와같은 전시회를 가질지 아니면 4학년들만이 여는 전시회가 될지 아직은 미정인 상태.

'Speak, Speaking'이라는 제목은 그림으로 말하는 이들이 현재 '말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전시회의 큰 주제와 상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가라사대佛·박진명



적의 도로·김희선

#### ◇TV비평-프로그램 편성

## 명절마다 중복된 내용 방영거둬 "값싼 외국프로론 시청자 요구 충족 안돼"

현재 우리는 방송의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현상으로 케이블 TV의 등장과 무궁화 위성으로 인한 위성방송의 현실화, 심지어 홍콩, 일본 방송까지도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방송프로그램의 변화는 얼마나 진전되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기위의 안방에는 가족들이 넘쳐난 점이 넘쳐흐르지만 방송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들 한번쯤은 보았음직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다채널 다매체의 시대인 지금의 방송프로그램이 감동을 주는 원인으로는 시청자 정서와 제작자 신념의 간격차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한기위 명절의 공중과 방송 프로그램을 어떤 한 계층의 협의적 시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편식, 중복된 편성 프로그램이 아직도 편지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예전에 비해 편성에 대한 고민과 신중한 기획, 예를들면 KBS1 김구, 아버지의 땅 유영기의 귀향일지 MBC의 한국인의 웃음 SBS 환상의 도미노특급과 MBC의 비봉가는 길 KBS2 큰파 같은 신선한 드라마와 스포츠 방영시간 축소 등 적절한 편성안배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편성은 그 나라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전제속에서 본다면 한기위라는 우리의 고유 명절의 문화나 의미를 되짚어 볼만한 프로그램이

공중과 4개 채널에서 하루 한두개의 프로그램만이 있을 뿐 대다수가 외화나 기존의 한국영화 재방이나 외국 서커스쇼 내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충족과 시청률이라는 과제가 있음을 인정하려다 새해가 갈고 한기위가 같다면 결코 좋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은 인간 누구나 기지는 보편적인 지향점과 사회성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송의 두가지 속성인 공공성과 상업성 중 공공성을 배제하고 상업적이익에 몰입하여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보다는 외국의 값싼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그것도 모자라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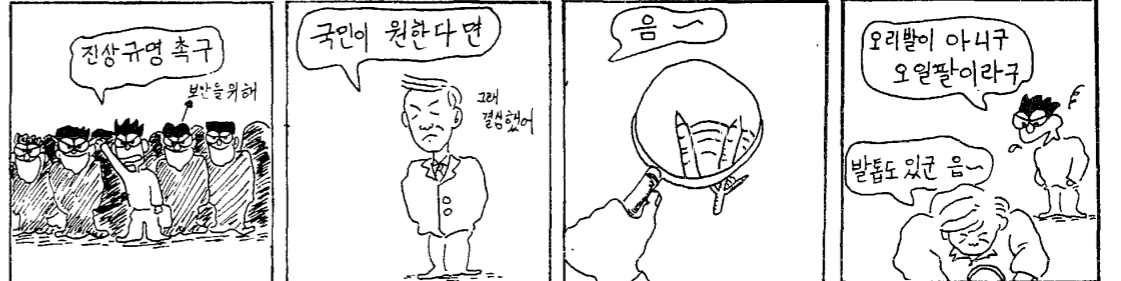
탕 삼탕까지 특집으로 올린다면 앞서 제기한대로 우리나라 문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공중과 방송의 특집 프로그램은 보면 특집이란 명칭만이 붙어 있지 그 내용은 대동소이. 전편일괄적 편성이라는 데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좋은 방송이나 좋은 편성은 MBC의 좋은 방송 덕목에서처럼 '공정적인 시대의 정신과 사회의 가치관 수용 및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며 가족적인 시청과 정보·교양 오락의 조화로운' 편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편식, 중복된 편식된 특집 방송편성은 지양될 것이라 본다. (문화부)



서 승 현 (17)



# "마당발"

## 한걸음을 내딛더라도 세계로 큰 걸음을 걷는 삼양그룹!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를 외칠 때 삼양그룹은 밖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조용히 세계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사원들이 세계화 되어야 삼양그룹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삼양의 경영자를 키우는 Future Leader 교육,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Global Manager 교육, 1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공부함으로써 현지적응을 추구하는 海外과거제도-삼양은 젊은 인재들의 패기와 정열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국을 무대로 뛰는 마당발이 되고자 합니다.

Future Leader, Global Manager 교육 및 해외과거제도도 세계화를 준비하는 삼양그룹의 사원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영역: 화성, 식품, 사료, 화성, 금융, 무역, 기계, 환경, 정보통신, 텍스타일, 의학
- 해외활동: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해외 각지의 지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지점망 확대에 주력



삼양사, 삼양중기, 삼양도농, 삼남씨유화학, 삼양화학, 신원제분, 삼양종합금융, 삼양메디칼, SY텍스타일, 삼양텍스, 삼양에이티스넷

